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의 효과

장은영 ·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환류 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라지며, 이는 사회비교 동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가설을 두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실험 1에서 성공/실패 환류, 환류의 일관성 및 비교속성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공 환류를 받으면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고 실패 환류를 받으면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여 환류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환류의 일관성에 따른 유사비교 대상의 선택은 추세만 나타났다. 실험 2에서 성공/실패 환류, 환류의 일관성 및 통제감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공/실패 환류, 환류의 일관성 및 통제감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 즉, 성공 환류를 받으면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실패 환류를 받으면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환류가 일관될 때보다 비일관될 때 유사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성공 환류라 하더라도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동일한 실패 환류라 하더라도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한덕웅(1999)이 사회비교의 자기조절이론에서 제안한 사회비교의 목표설정과 목표개입에 미치는 비교 경험의 영향 경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Festinger(1954)에 의하여 유사비교가 나타나는 과정이 설명되고 Wills(1981)에 의하여 하향비교가 나타나는 과정이 설명된 이후로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가 언제 어떤 기제에 의하여 나타나는지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한덕웅, 1999; Friend & Gilbert, 1973; Hakmiller, 1966; Tesser, Miller, & Moore, 1988; Trope & Neter, 1994; Wheeler & Miyake, 1992; Wood, Taylor, & Lightman, 1985). 이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가 나타나는 상황이나 조건은 다르며, 이러한 비교로 사람들이 얻게되는 득과 실도 서로 다르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 과정에 기여하는 선행 요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 상황에서 비교를 통해서 경험한 결과에 따라서 사회비교의 목표가 달라지고 비교하려는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회비교의 목표나 대상이 달라진다는 환경결정론을 가정한다.

이와 달리 한덕웅(1999)은 사회비교 과정을 자기조절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① 의지 혹은 의도에 의해서 선택되는 사회비교목표의 설정 경로와 ② 사회비교의 경험을 통해서 환경결정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비교목표의 개입 경로라는 두 경로를 통해서 사회비교가 이루어진다고 제안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다면 사회비교의 목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거나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한 사회비교목표에 개입 수준이 높아지면 특정한 사회비교의 동기는 높아진다. 또한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의 사회비교목표들 가운데 특정 목표가 의도적으로 선택되어 설정된 조건에서 사회비교의 결과로 목표와 일치되지 않는 사회비교의 개입 수준이 높아지면 상승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는 더 높아진다. 한덕웅(1999)은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향상, 자기평가 혹은 자기고양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건에서 각 목표에 조화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사회비교의 개입 상황에 당면할 때 각각 어떤 비교 대상을 선택하는지 알아본 바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비교의 목표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회비교 동기를 경험하고, 이 비교 동기로 인해서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이 영향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비교의 목표와 상황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보다 비교 목표를 달성하기 좋은 비교 대상의 선택률이 더 높았다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사회비교의 목표가 의도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고양의 세 가지 동기들이 우세해질 수 있는 상황에 당면할 때 어떤 사회비교 대상을 선택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비교 현상을 다루는 국외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비교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조건에서 상황의 영향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나 비교의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달리 말하면 사회비교의 목표설정과 목표개입 가운데 목표개입을 일으키는 상황 요인들을 다루었다. 본 연구도 사회 상황에서 특정한 사회비교의 목표개입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개입 수준이 높은 사회비교 동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비교의 대상이 선택되는지 검토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요약해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비교 목표들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회비교 동기를 거쳐서 비교 대상의 선택에 영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사회비교목표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수행 결과의 환류(feedback), 환류의 일관성, 비교속성의 관련성 및 지각된 통제감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변인들이 각각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가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환류 유형과 사회비교의 관계: 사회비교 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해를 끼치는 위협 요인으로 스트레스, 질병, 실패 예측 및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Gibbons & McCoy, 1991; Trope & Neter, 1994; Wood, Giordano-Beech, Taylor, Michela, & Gaus, 1994) 등이 자주 다루어졌다. 특히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 환류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에 해를 끼치고 그 외에도 여러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즉, 개인에게 창피함, 죄책감 그리고 실망과 같은 정서적 부담을 초래한다. 반면에 자신의 수행 결과에 관한 긍정적 환류(positive feedback) 정보는 개인이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부정적 정보에 대처할 심적 자원을 마련해준다(Trope & Neter, 1994).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실제로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을 다른 연구들을 보면 환류에 따라서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은 알아보면서 매개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비교 동기의 역할을 검토하지 않았다.

성공이나 실패의 환류가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성공 환류는 상향비교의 동기를 높이고 실패 환류는 하향비교의 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입을 초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약점 위주의 정보에 접하거나 상향비교했을 때 초래되는 정서적 부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향비교의 개입을 유발시킨다. 또한 실패 정보는 침해받은 안녕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강점 위주의 정보를 추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향비교의 개입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성공 환류를 받게 되면 자기향상 동기가 우세해져서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한다(가설 I-1). 그러나 실패 환류를 받게 되면 자기고양 동기가 우세해져서 하향비교 비교 대상을 선택한다(가설 I-2). 또한 Festinger의 유사성 가설

에 근거하면, 개인의 수행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자기평가 동기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유사비교 대상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번에 걸친 자신의 수행 결과의 차이가 크다는 비일관된 환류를 받게 되어서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평가 동기가 우세해져서 유사비교 대상을 선택한다(가설 I-3).

이에 더하여 동일한 성공/실패 환류라고 하더라도 그 환류가 일관되게 주어지느냐 비일관되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 환류가 비일관되게 주어지면 일관될 때보다 자기평가 동기가 높아져서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를 낮출 것이다. 반면 실패 환류가 비일관되게 주어지면 일관될 때보다 자기평가 동기가 높아져서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를 낮출 것이다. 따라서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는 환류가 비일관될 때보다 일관될 때 상향비교 선택 빈도는 더 높고(가설 I-4),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는 환류가 비일관될 때보다 일관될 때 하향비교 선택 빈도는 더 높다(가설 I-5).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의 성공/실패 환류가 사회비교 동기를 유발하여 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가적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하는 비교의 속성과 지각된 통제감의 기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비교속성과 사회비교의 관계: Festinger의 유사성 가설이 제안된 이후 '유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Goethals와 Darley (1977)는 Festinger(1954)가 제안한 유사성의 개념이 관련된 속성에서 유사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모를 때 능력이나 의견과 관련된 속성에서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므로 관련속성설이 Festinger(1954)가 제안한 사회비교 개념과 근접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교 과정에서 비교하는 속성이 영향을 미치는 배경을 설명해야 한다. 한가지 가능성은 장차 그 속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비교의 결과가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즉, 비교와 관련없는 속성과 달리 비교가 이루어지는 속성은 비교

결과가 개인에게 의미나 가치를 느끼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비교 과정에서 목표개입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비교 결과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크게 느낄수록 비교 목표에 대한 개입은 높아진다.

비교 결과가 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관련 속성 이외에 여러 요인들(예: 심리적 가까움, 집단, 유사성 등)에 의해서 달라지는데(Brown, Novick, Lord, & Richards, 1992; Major, Sciacchitano, & Crocker, 1993), 이 요인들은 관련 속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예상하거나 경험하는 비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교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펴본 근거로 보면 동일한 성공/실패 환류를 받더라도 장차 환류가 주어진 속성과 관련된 속성에서 비교하느냐 또는 무관한 속성에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환류가 주어진 속성과 관련이 없는 속성에서 비교할 때보다 관련 속성에서 비교하면 장차 동일하게 성공이나 실패 경험이 나타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차 자기향상 동기 혹은 자기고양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어서 특정한 사회비교에 대한 개입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빈도는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속성보다 관련된 속성에서 더 높고(가설 II-1),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 하향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빈도는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속성보다 관련된 속성에서 더 높다(가설 II-2).

지각된 통제감과 사회비교의 관계: 사회비교이론을 다룬 연구들에서 지각된 통제감은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사회비교 동기와 비교 대상의 선택이라는 두 변인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중요성이 크다. 왜냐하면 장차 이루어질 비교 결과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도 비교 대상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Tesser, Miller, & Moore, 1988 참고).

스트레스 또는 위협 상황에 당면해서 개인의 지각된 통제감이 개인이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사회비교의 연구에 적용되면서

하향비교 추구에서 조절 또는 매개 작용을 한다고 가정되었다(Buunk, Collins, Taylor, VanYperen, & Dakof, 1990; Sun & Croyle, 1995). 하향비교는 자신에 관련된 부정적 정보로 자존감이 위협받는 조건에 당면하여 손상된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추구된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자신의 통제감이 낮다고 지각하게 되면, 장차 부정적 정보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므로, 자존감을 고양 또는 방어하기 위해서 하향비교를 더욱 추구한다. 즉, 실패 환류나 질병 등과 같이 자존감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통제감이 낮다고 지각되면 자기고양 또는 자기방어 동기는 더욱 강력해져서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하향비교가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통제감을 다룬 연구들에서 종속변인으로서 비교 대상의 선택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고, 비교 의도나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들만 보고되었다.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지각된 통제감의 기능이 중요한 점은 상향비교에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존감에 위협을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고양이나 자기방어 동기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 관하여 긍정적 정보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앞으로 수행할 과제의 수행 수준을 자신이 통제할 있다고 지각하면 개인의 자기향상 동기가 우세할 것이다(Taylor, Wayment, & Carillo,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통제감을 단지 실패와 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성공을 통해 개인의 자기향상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상황에도 적용하려 한다. 지각된 통제감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노력 발휘와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지각된 통제감을 자기효능감(Bandura, 1977)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구체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개인차 변인인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각된 통제감은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요약하면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해서 높은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면 자신에 의해서 수행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할 것이다. 반면에 수행 수준에 대해서 낮은 통제감을 지닌다고 지각하면 자신에 의해 수행 수준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수행에서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수행 수준에 대한 통제감이 높으면, 수행 수준에 대한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이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향상 욕구가 강하게 작동하여 상향비교를 추구할 것이다. 반면에 실패 정보를 받은 경우에도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해 통제감이 낮으면, 수행 수준에 대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이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기고양 욕구가 강하게 작동하여, 하향비교를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는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높고(가설Ⅲ-1),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는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높다(가설Ⅲ-2)는 가설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들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 성공 환류를 받게 되면 다른 조건보다 상향비교 대상을 더 선택한다(가설Ⅰ-1). 반면에 실패 환류를 받게 되면 다른 조건보다 하향비교 비교 대상을 더 선택한다(가설Ⅰ-2). 그리고 자신의 수행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을 경험하여 다른 조건보다 유사비교 대상을 더 선택한다(가설Ⅰ-3). 또한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는 환류가 비일관될 때보다 일관될 때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더 높고(가설Ⅰ-4),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는 환류가 비일관될 때보다 일관될 때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더 높다(가설Ⅰ-5). 이에 더하여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빈도는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속성보다 관련된 속성에서 더 높고(가설Ⅱ-1),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 하향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빈도는 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속성보다 관련된 속성에서 더 높다(가설Ⅱ-2). 마지막으로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는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더 높고(가설Ⅲ-1),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는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높다(가설III-2).

실험 1

실험 1에서는 지각능력검사와 수리능력검사를 비교 명명된 과제를 사용하여 환류의 유형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리 나타나며 이에 더하여 환류의 일관성과 비교속성의 관련성이 비교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즉, 실험 1을 통하여 가설 I-1, 가설 I-2, 가설 I-3, 가설 I-4, 가설 I-5, 가설 II-1 및 가설 II-2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실험 절차: 피험자들은 4명씩 함께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진행되었고, 컴퓨터 사이에 칸막이를 두어서 피험자는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없었다. 피험자들이 모두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이 연구는 적성검사에 포함되는 지각능력과 수리능력에서 현재 대학생들의 수준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목적을 소개하였다. 연구 목적을 소개한 후 피험자들에게 지각능력검사와 수리능력검사를 받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피험자들은 지각능력검사부터 받았는데, 이 검사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글자, 낱자, 그림 및 숫자 등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라고 알려주었다. 과제 설명을 한 후 지각능력의 연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본시행을 3분씩 2회 수행하였다. 2번의 본시행이 끝난 후 성공/실패 환류와 환류의 일관성을 지각능력 점수로 조작하고, 비교가 이루어지는 속성의 관련성을 지각능력검사와 수리능력검사의 관련성으로 조작하였다. 이 세 독립변인을 조작한 후에 종속변인으로서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게 되며, 비교 대상의 선택 이후에 조작 점점 문항과 부가적 종속측정치가 들어있는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그 후 피험자들은 두 번째 검사로 수리능력검사를 받게 되고 자신의 수리능력검사 결과와 자신이 알고자 했던 사람의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보게 된다.

피험자: '심리학개론' 교양 강의를 수강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180명을 12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 설계: 3(수행의 성공/실패 환류: 성공/보통/실패) ×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일관/비일관) × 2(비교속성: 관련/무관련)의 완전무선설계이었다.

실험 과제: 지각능력검사에서는 한 쌍의 그림판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후 두 그림판이 같다고 생각되면 자판에서 알파벳 'O'를 누르고, 다르다고 생각되면 알파벳 'X'를 눌러야 한다. 지각능력 점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응답한 개수, 반응하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정확하게 응답한 개수를 고려하여 산출된다고 연습 과제 전에 피험자들에게 알려주었다. 수리능력검사에서는 30개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열이 나타나면 맨 앞의 숫자를 기준으로 맨 앞의 숫자가 홀수이면 같은 홀수 아래에는 'O'를, 짝수 아래에는 'X'를 눌러서 응답하는 과제이다. 각 숫자열은 15초간 제시되며, 15초가 지나면 'O' 또는 'X'를 눌러도 입력되지 않았다.

독립변인 조작

① 수행의 성공/실패 환류: 수행의 성공/실패 환류는 피험자들에게 미리 이 지각능력검사를 사용한 이전 연구의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50점을 평균으로 하여 환산한 점수라고 알려주었다. 성공조건에서는 평균적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 80점이며 이 점수는 평균적 대학생보다 우수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하여 주어서 조작하였다. 보통조건에서는 평균적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 50점이며 이 점수는 평균적 대학생과 비슷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하여 주어서 조작하였다. 실패 조건에서는 평균적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했을 때 자신의 점수가 평균 20점이며 이 점수는 평균적 대학생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하여 주어서 조작하였다.

②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은 두 본시행에서 나타난 자신의 점수 차이로 조작하였다. 즉, 환류된 점수 차이가 크면 비밀관조건, 점수 차이가 작으면 일관조건에 해당한다. 지각능력 점수는 두 번의 본시행에 대한 점수를 각각 알려주었는데, 두 점수는 각 조건마다 순서상쇄시켰다. 일관조건에서는 두 번의 본시행의 점수 차이가 4점으로 매우 작아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일관성공조건에서 제시받게 되는 환류는 78점과 82점, 일관보통조건에서 제시받게 되는 환류는 48점과 52점 그리고 일관실패조건에서 제시받게 되는 환류는 18점과 22점이었다. 비밀관조건에서는 두 번의 본시행의 점수 차이가 20점으로 매우 커서 일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었다. 따라서 비밀관성공조건에서 제시받게 되는 환류는 70점과 90점, 비밀관보통조건에서 제시받게 되는 환류는 40점과 60점 그리고 비밀관실패조건에서 제시받게 되는 환류는 10점과 30점이었다.

③ 비교 속성의 관련성: 비교가 이루어지는 속성은 지각능력과 수리능력의 관련성으로 조작하였다. 관련조건에서는 지각능력검사와 수리능력검사를 사용한 이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능력이 높은 사람은 앞으로 받게되는 수리능력검사에서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각능력과 수리능력은 서로 관련이 높다고 알려주었다. 무관련조건에서는 지각능력검사와 수리능력검사를 사용한 이전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능력이 높은 사람이 앞으로 받게되는 수리능력검사에서도 꼭 잘하지는 못해서 지각능력과 수리능력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중속변인 측정

피험자들에게 수리능력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리능력검사 결과와 다른 한 사람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결과와 비교하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피험자는 자신의 결과와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할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지각능력검사에서 얻은 자신과 다른 세 사

람의 지각능력 수준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점수들은 사전에 조작된 것이었다. 모든 피험자에게 제시된 점수는 세 사람 중 한사람은 자신보다 지각능력 수준이 높으며 또 한사람은 자신과 유사했고, 나머지 한사람은 자신보다 낮았다. 피험자는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싶은 사람을 세 사람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입력했다. 다른 세 사람을 나타내는 알파벳(A, B, C)은 순서상쇄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결과를 알아보고 선택한 사람의 화면에도 자신의 수리능력 점수가 나타난다고 하여서 무성의한 응답을 억제했다. 그러나 개인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검사 결과에는 능력에 대한 분석과 설명만이 나타날 뿐,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결 과

독립변인 조작 효과: 각 실험 조건에 따라서 피험자들이 자신이 받은 독립변인 조작 지시문을 기억하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에게 제시된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했다. 또한 성공/실패 환류의 조작 효과를 ‘당신은 자신의 지각능력 점수가 다른 대학생에 비하여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3(\text{성공/실패 환류}) \times 2(\text{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text{관련성})$ 로 변량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공/실패 환류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_{(2,168)} = 187.78, p < .001, \omega^2 = 0.51$). 즉, 성공조건($M = 6.82$)에서 보통조건($M = 4.83$)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좋다고 응답했고, 보통조건에서 실패조건($M = 2.37$)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조작 효과는 ‘당신은 자신의 두 번의 지각능력 점수가 차이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3(\text{성공/실패 환류}) \times 2(\text{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text{관련성})$ 로 변량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_{(1,168)} = 225.34, p < .001, \omega^2 = 0.55$). 즉, 일관조건($M = 6.71$)에서 비밀관조건($M = 3.21$)보다 자신의 점수가 일관된다고 응답하였다. 비교 속성의 관련성 조작 효과는 ‘당신은 지각능

력과 수리능력이 관련된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3(성공/실패 환류) ×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 2(관련성)로 변량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관련성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_{(1,168)} = 149.87, p < .001, \omega^2 = 0.39$). 즉, 관련조건($M = 6.51$)에서 무관련조건($M = 3.31$)보다 지각능력과 수리능력이 관련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인의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사회비교 대상 선택의 빈도 분석: 피험자들이 다음으로 받게되는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사람으로 선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Linea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3(성공/실패 환류) ×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 2(관련성)의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공/실패 환류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chi^2=24.17, p < .001$). 이에 대한 대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한 경우 성공조건과 보통조건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성공조건과 실패조건($\chi^2 = 14.44, p < .001$), 보통조건과 실패조건 사이($\chi^2 = 7.22, p < .01$)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향비교는 실패조건에 비하여 성공조건과 보통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표 1을 보면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향비교(21%)보다 상향비교(55%)와 유사비교(45%) 대상을 더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I-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성공 환류를 받으면 심적 자원을 지니게 되어서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하향비교의 경우 성공조건과 보통조건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성공조건과 실패조건($\chi^2 = 17.44, p < .001$), 보통조건과 실패조건 사이($\chi^2 = 17.54, p < .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하향비교는 성공조건과 보통조건에 비하여 실패조건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표 1을 보면 실패 환류를 받은 경우에 사람들은 상향비교(7%)와 유사비교(7%)보다 하향비교(38%) 대상을 더 선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I-2를 지지하는 결과

표 2. 사회비교 대상 선택의 빈도의 차이 분석

| 변량원 | df | χ^2 |
|-------------------|----|----------|
| 성공/실패 환류(A) | 4 | 24.17*** |
| 일관성(B) | 2 | 0.99 |
| 관련성(C) | 2 | 0.50 |
| 성공/실패 환류×일관성(A×B) | 4 | 1.50 |
| 성공/실패 환류×관련성(A×C) | 4 | 1.73 |
| 일관성×관련성(B×C) | 2 | 0.49 |
| 환류×일관성×관련성(A×B×C) | 4 | 2.45 |

*** $p < .001$

표 1.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 | | 성공 | | | 보통 | | | 실패 | | | 전체 | | | | | | | | | | |
|-----|-------|----|-------|----|-------|----|-------|----|-------|----|-------|----|-------|----|-------|----|-------|----|-------|-----|-------|
| | | 일관 | | 전체 | 일관 | | 전체 | 일관 | | 전체 | | | | | | | | | | | |
| | | N | % | | N | % | | N | % | | | N | % | | | | | | | | |
| 관련성 | 대상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상향비교 | 9 | 60.0 | 7 | 46.6 | 16 | 53.3 | 6 | 40.0 | 9 | 60.0 | 15 | 50.0 | 4 | 26.6 | 3 | 20.0 | 7 | 23.3 | 38 | 42.2 |
| | 유사비교 | 5 | 33.3 | 7 | 46.6 | 12 | 40.0 | 8 | 53.3 | 6 | 40.0 | 14 | 46.7 | 4 | 26.6 | 6 | 40.0 | 10 | 33.3 | 36 | 40.0 |
| | 하향비교 | 1 | 6.7 | 1 | 6.6 | 2 | 6.7 | 1 | 6.7 | - | - | 1 | 3.3 | 7 | 46.6 | 6 | 40.0 | 13 | 43.3 | 16 | 17.7 |
| | 전체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90 | 100.0 |
| 무관련 | 상향비교 | 8 | 53.3 | 9 | 60.0 | 17 | 56.6 | 7 | 46.6 | 5 | 33.3 | 12 | 40.0 | 4 | 26.7 | 2 | 13.3 | 6 | 20.0 | 35 | 38.8 |
| | 유사비교 | 6 | 40.0 | 5 | 33.3 | 11 | 36.6 | 7 | 46.6 | 8 | 53.3 | 15 | 50.0 | 5 | 33.3 | 9 | 60.0 | 14 | 46.7 | 40 | 44.5 |
| | 하향비교 | 1 | 6.7 | 1 | 6.7 | 2 | 6.6 | 1 | 6.6 | 2 | 13.3 | 3 | 10.0 | 6 | 40.0 | 4 | 26.7 | 10 | 33.3 | 15 | 16.6 |
| | 전체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90 | 100.0 |
| 전체 | | 30 | 100.0 | 30 | 100.0 | 60 | 100.0 | 30 | 100.0 | 30 | 100.0 | 60 | 100.0 | 30 | 100.0 | 30 | 100.0 | 60 | 100.0 | 180 | 100.0 |

이다. 뒤에 살펴볼 비교 동기의 분석 결과를 참고로 하면 실패 환류를 받아서 자존감에 손상을 입으면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이외에 실험 1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 I-3, 가설 I-4, 가설 I-5, 가설 II-1 및 가설 II-2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가설 I-3은 일관된 성공/실패 환류보다 비일관된 성공/실패 환류에서 유사비교한 빈도가 다소 높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가설 I-4는 성공조건에 제한하여 검토했을 때 일관된 환류와 비일관된 환류 사이에 차이가 없어서 기각되었다. 가설 I-5는 실패조건에 제한하였을 때 예언과 일치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가설 II-1은 성공조건에 제한하여 검토했을 때 관련된 조건과 무관련된 조건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가설 II-2는 실패조건에 제한하여 검토했을 때 예언과 일치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기각되었다.

전반적으로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를 보면 상향비교가 40%, 유사비교가 42%, 하향비교가 17%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수행이 보통인 집단의 경우, 상향비교가 45%, 유사비교가 43%, 하향비교가 7%로 나타나는데, 수행에서 성공한 집단에서 나타난 상향비교 54%, 유사비교 38%, 하향비교 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상향비교 추구가 보통 수준인 환류조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모두 대학생이어서 대학생들의 상향비교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비교 동기의 분석: 한덕웅(1999)에서 사용한 문항과 동일한 6개 문항으로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 동기를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이 실제 세 개의 구별된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양호했다($GFI = 1.00$, $AGFI = 0.99$, $NFI = 0.99$, $NNFI = 0.98$, $RMR = 0.16$). 따라서 각각의 사회비교 동기는 이를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한 평정치를 합한 값을 사용하여, 각각의 비교

동기에 대해서 3(성공/실패 환류) \times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관련성)의 3원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이제 각각의 사회비교 동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향비교 동기는 성공조건($M = 14.68$)과 보통조건($M = 13.73$)에서 실패조건($M = 10.63$)보다 더 높았다($F_{(2,168)} = 21.78$, $p < .001$, $\omega^2 = 0.20$). 이는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결과와도 일관된다. 또한 일관조건($M = 12.49$)보다 비일관조건($M = 13.54$)에서 상향비교 동기가 더 높았다($F_{(1,168)} = 4.06$, $p < .05$, $\omega^2 = 0.02$). 그러나 이는 관련성과 성공/실패 환류의 2원 상호작용($F_{(2,168)} = 3.12$, $p < .05$, $\omega^2 = 0.04$)과 관련성, 성공/실패 환류 및 일관성의 3원 상호작용($F_{(2,168)} = 4.38$, $p < .01$, $\omega^2 = 0.04$)으로 그 해석이 제한된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향비교 동기는 성공조건인 경우 비일관된 무관련조건($M = 15.73$)에서 가장 높았다. 단순 상호작용이 유의했던 보통조건인 경우에는 일관된 환류를 받은 경우 관련조건($M = 12.13$)보다 무관련조건($M = 14.40$)에서 상향비교 동기가 높고, 비일관된 환류를 받은 경우 무관련조건($M = 13.13$)보다 관련조건($M = 15.27$)에서 상향비교 동기가 높다. 즉, 성공 환류를 받으면 앞으로 관련된 과제를 할 때보다 무관련된 과제를 하게 될 때 상향비교를 하려는 동기가 더욱 높고 일관된 성공 환류를 받을 때보다 비일관된 성공 환류를 받았을 때에 상향비교를 하려는 동기가 더욱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설 I-4 및 가설 II-1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즉, 일관된 성공 환류를 받았거나 성공한 과제와 관련된 과제를 앞으로 하게 될 때에는 상향비교 동기가 높아져서 상향비교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오히려 비일관된 성공 환류를 받았거나 성공한 과제와 무관련된 과제를 앞으로 하게 될 때 상향비교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결과에서 성공 조건을 살펴보면 일관된 환류를 받고 관련 과제를 하게 될 경우와 비일관된 환류를 받고 무관련 과제를 하게 될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9명씩으로 가장 높았다.

둘째, 유사비교 동기는 보통조건($M = 14.18$)이 성공조건($M = 12.93$)과 실패조건($M = 12.99$)보다 더 높았다($F_{(2,168)} = 6.87, p < .01, \omega^2 = 0.06$). 그리고 일관조건($M = 12.29$)보다 비일관조건($M = 13.70$)에서 유사비교 동기가 더 높았다($F_{(1,168)} = 7.63, p < .01, \omega^2 = 0.04$). 따라서 비일관된 환류를 받아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 유사비교 동기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하향비교 동기는 실패조건($M = 12.12$)과 보통조건($M = 11.57$)에서 성공조건($M = 9.03$)보다 더 높았다($F_{(2,168)} = 8.95, p < .001, \omega^2 = 0.08$). 이는 가설 I-2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실패조건의 경우 무관련조건($M = 10.70$)보다 관련조건($M = 13.53$)에서 하향비교 동기가 유의하게 높는데($F_{(2,168)} = 6.17, p < .01, \omega^2 = 0.05$), 즉, 자신이 실패 환류를 받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 사람들은 무관련된 과제를 하게 될 때보다 하향비교 동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실패 환류를 받으면 자존감에 손상을 입어서 하향비교 동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한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실패한 차원과 관련된 차원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 자신의 손상될 자존감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하향비교 동기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비교 동기는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관련성이 비교에 유의미성을 추가하는 기능 이외에 자기향상동기나 자기평가 동기를 유발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결과에서 실패조건을 살펴보아도 일관된 환류를 받고 관련 과제를 하게 될 경우에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7명으로 가장 높았다.

논 의

실험 1의 결과를 보면, 성공/실패 환류만이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의 선택과 비교 동기가 유사비교에 대해서 그 형태는 일치하였지만, 유의한 수준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비일관된 환류를 받을 때에 일관된 환류를 받을 때보다 유사비교 대상

을 더 선택하는 경향(일관조건에서 유사비교 빈도: 35명 vs 비일관조건에서 유사비교 빈도: 41명)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관련조건보다 무관련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유사비교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속성설과 모순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관련성을 조작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무관련조건의 경우 앞선 과제와 앞으로 하게 될 과제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어서 자신이 받은 성공/실패 환류를 근거로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제에서 자신의 수준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실험 1의 결과를 볼 때에 개인의 사회비교 동기와 간접적 자기 고양 전략은 본 연구의 가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을 보였으나, 직접적 자기 고양 전략인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비교 동기와는 달리 상향비교와 유사비교가 하향비교에 비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피험자들이 실제 하향비교 동기와는 달리 상향비교나 유사비교를 선택하는 점이 나타났는데, 이는 이후 수행하게 되는 수리능력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 즉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교 대상을 선택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통 집단이 성공 집단에 비하여 실제 자신의 지각능력 수준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이들의 비교 대상의 선택을 보면 성공 집단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성공 집단과 다르지 않으며, 두 집단 모두 하향비교 대상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각 환류 수준에서의 수리능력검사 결과 예측을 들 수 있다. 즉, “당신은 수리능력검사에서 자신의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9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였는데, 성공 집단의 경우 평균이 6.43, 보통 집단의 경우 평균이 6.10이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실패 집단의 경우 평균이 5.67로 이 두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따

라서 보통 집단에서 앞으로의 자신의 검사 결과 예측이 성공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는 점이 이 집단에서 주로 상황비교 대상을 선택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관련성 변인이 본 연구의 의도와는 달리 비교 방향이나 성공/실패 환류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즉, 두 가지 과제의 무관련성이 관련성보다 불확실성을 높인 점이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한 내용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실 험 2

실험 2에서는 지각능력검사와 수리능력검사라고 명명된 과제를 사용하여 환류의 유형에 따라서 비교 대상의 선택이 달리 나타나며, 이에 더하여 지각된 통제감이 비교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따라서 실험 1에서 검증한 가설 I-1, 가설 I-2, 가설 I-3, 가설 I-4, 가설 I-5을 반복 검증하여 결과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가설 III-1 및 가설 III-2를 검증한다.

연구 방법

실험 절차: 성공/실패 환류와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을 지각능력 점수로 조작하기까지는 실험 1과 절차가 동일하였다. 수리능력검사의 연습시행을 실시한 후 수행 결과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을 수리능력검사에서 10번의 총 시행 횟수 중에서 점수에 감안되는 3번의 시행을 피험자 자신 또는 컴퓨터가 선택한다고 하여서 조작하였다. 이 세 독립변인을 조작한 후에 종속변인으로서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며, 비교 대상의 선택 이후에 조작 점검 문항과 부가적 종속측정치가 들어있는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그 후 피험자들은 두 번째 검사로 수리능력검사를 받게 되고 자신의 수리능력검사 결과와 자신이 알고자 했던 사람의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보게 된다.

피험자: '심리학개론'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120명을 8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하

였다.

실험 설계: 2(수행의 성공/실패 환류: 성공/실패) ×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일관/비일관) × 2(지각된 통제감: 높음/낮음)의 완전무선설계이었다.

독립변인: 성공/실패의 환류는 실험 1의 보통조건을 제외하고 성공조건과 실패조건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두 조건의 조작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도 실험 1과 동일하였다. 수행 결과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수리능력검사에서 총 10번의 시행 중에서 최종 점수에 감안되는 3번의 시행을 누가 선택하느냐로 조작하였다. 높은조건에서는 점수에 감안되는 3번의 시행을 피험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서 조작하였다. 낮은조건에서는 점수에 감안되는 3번의 시행을 컴퓨터가 무선으로 선택한다고 알려주어서 조작하였다.

종속변인 측정: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결 과

독립변인 조작 효과: 각 실험 조건에 따라서 피험자들이 자신이 받은 독립변인 조작 지시문을 기억하는지 알아본 결과,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에게 제시된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했다. 또한 성공/실패 환류의 조작 효과를 '당신은 자신의 지각능력 점수가 다른 대학생에 비하여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2(성공/실패 환류) ×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 2(통제감)로 변량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공/실패 환류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F_{(1,112)} = 204.88, p < .001, \omega^2 = 0.63$). 즉, 성공조건($M = 6.83$)에서 실패조건($M = 2.97$)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조작 효과는 '당신은 자신의 두 번의 지각능력 점수가 차이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2(성공/실패 환류) ×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 2(통제감)로 변량 분석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

다($F_{(1,112)} = 459.49, p < .001, \omega^2 = 0.79$). 즉, 일관조건($M = 7.38$)에서 비일관조건($M = 2.22$)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응답하였다. 수행 결과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 조작 효과는 ‘당신은 수리능력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얼마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2(성공/실패 환류) \times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통제감)로 변량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제감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1,112)} = 36.73, p < .001, \omega^2 = 0.23$). 즉, 통제감이 높은조건($M = 6.82$)에서 낮은조건($M = 4.70$)보다 수리능력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더 달려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 자신에 의해서 수리능력 점수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에 대한 응답을 2(성공/실패 환류) \times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통제감)로 변량 분석한 결과, 통제감의 주효과만이 유의하였다. ($F_{(1,112)} = 276.35, p < .001, \omega^2 = 0.69$). 즉, 통제감이 높은조건($M = 6.63$)에서 낮은조건($M = 2.63$)보다 수리능력 점수가 자신에 의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비교 대상 선택의 빈도 분석: 피험자들이 다음으로 받게되는 수리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사람으로 선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표 3.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 통제감 | 대상 선택 | 성공 | | | | | | 실패 | | | | | | | |
|-----|-------|----|-------|-----|-------|----|-------|----|-------|-----|-------|----|-------|-----|-------|
| | | 일관 | | 비일관 | | 전체 | | 일관 | | 비일관 | | 전체 | | 전체 | |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N | % |
| 관련 | 상향비교 | 12 | 80.0 | 7 | 46.7 | 19 | 63.3 | 6 | 40.0 | 5 | 33.3 | 11 | 36.7 | 30 | 50.0 |
| | 유사비교 | 2 | 13.3 | 6 | 40.0 | 8 | 26.7 | 3 | 20.0 | 6 | 40.0 | 9 | 30.0 | 17 | 28.3 |
| | 하향비교 | 1 | 6.7 | 2 | 13.3 | 3 | 10.0 | 6 | 40.0 | 4 | 26.7 | 10 | 33.3 | 13 | 21.7 |
| | 전체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60 | 100.0 |
| 무관련 | 상향비교 | 7 | 46.7 | 4 | 26.7 | 11 | 36.7 | 2 | 13.3 | 1 | 6.7 | 3 | 10.0 | 14 | 23.3 |
| | 유사비교 | 3 | 20.0 | 9 | 60.0 | 12 | 40.0 | 2 | 13.3 | 6 | 40.0 | 8 | 26.7 | 20 | 33.3 |
| | 하향비교 | 5 | 33.3 | 2 | 13.3 | 7 | 23.3 | 11 | 73.3 | 8 | 53.3 | 19 | 63.3 | 26 | 43.3 |
| | 전체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15 | 100.0 | 15 | 100.0 | 30 | 100.0 | 60 | 100.0 |
| 전체 | | | | | | | | | | | | | | | |
| | | 30 | 100.0 | 30 | 100.0 | 60 | 100.0 | 30 | 100.0 | 30 | 100.0 | 60 | 100.0 | 120 | 100.0 |

이에 대해 Linea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2(성공/실패 환류) \times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통제감)로 빈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실험 2에서는 성공/실패 환류와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그리고 지각된 통제감이 비교 대상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변인 별로 정리해본 대비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성공/실패 환류에 의한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의 경우 대비분석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의 경우에 성공조건과 실패조건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13.15, p < .001$). 즉 성공 환류를 받은 사

표 4. 사회비교 대상 선택의 빈도의 차이 분석

| 변량원 | df | χ^2 |
|---|----|----------|
| 성공/실패 환류(A) | 2 | 13.15** |
| 일관성(B) | 2 | 8.55* |
| 통제감(C) | 2 | 8.80* |
| 성공/실패 환류 \times 일관성(A \times B) | 2 | 0.12 |
| 성공/실패 환류 \times 통제감(A \times C) | 2 | 0.33 |
| 일관성 \times 통제감(B \times C) | 2 | 0.73 |
| 환류 \times 일관성 \times 통제감(A \times B \times C) | 2 | 0.90 |

* $p < .05$ ** $p < .01$

표 5. 가설 검증을 위한 대비 분석 결과

| | 상향비교 | | 유사비교 | | 하향비교 | |
|------------------|------|----------|------|----------|------|----------|
| | df | χ^2 | df | χ^2 | df | χ^2 |
| 성공 환류 조건 | | | | | | |
| 일관 vs 비일관 | 1 | 5.00** | 1 | 8.82** | 1 | 0.52 |
| 높은 통제감 vs 낮은 통제감 | 1 | 5.00** | 1 | 1.41 | 1 | 2.07 |
| 실패 환류 조건 | | | | | | |
| 일관 vs 비일관 | 1 | 0.42 | 1 | 4.32* | 1 | 1.89 |
| 높은 통제감 vs 낮은 통제감 | 1 | 6.67** | 1 | 0.09 | 1 | 6.14* |

* $p < .05$ ** $p < .01$

람들은 유사비교(34%)와 하향비교(17%)보다 상향비교(49%)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가설 I-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향비교의 경우에도 성공조건과 실패조건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17.25, p < .001$). 또한 표 3을 보면 실패 환류를 받은 사람들은 유사비교(28%)와 상향비교(24%)보다 하향비교(48%)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가설 I-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성공 환류와 실패 환류에서의 비교 대상의 선택이 실제 어떤 조건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환류 조건에서 일관성과 지각된 통제감에 따라서 상향비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공조건의 경우 상향비교는 비일관조건(36%)보다 일관조건(63%)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chi^2 = 5.00, p < .05$). 따라서 이는 가설 I-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성공조건의 경우 상향비교는 통제감이 낮은 조건(36%)보다 통제감이 높은 조건(63%)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chi^2 = 5.00, p < .05$). 따라서 이는 가설 III-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하여 실패조건의 경우 하향비교는 통제감이 높은 조건(33%)보다 통제감이 낮은 조건(63%)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chi^2 = 6.14, p < .05$). 따라서 이는 가설 III-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일관조건(39%)보다 일관조건(56%)에서 하향비교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에 의한 비교 대상

의 선택 빈도의 경우 대비분석 결과를 보면 유사비교 선택은 일관조건과 비일관조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12.75, p < .001$). 즉 일관조건보다 비일관조건에서 유사비교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는 가설 I-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비일관된 환류를 받아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면 유사비교 대상의 선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상향비교에서 일관조건과 비일관조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상향비교는 비일관조건보다 일관조건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chi^2 = 4.46, p < .05$). 이는 성공조건의 일관되고 통제감이 높은 조건에서 12명(80%)이 상향비교를 선택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설에서 예언한 것은 아니지만,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각된 통제감에 의한 비교 대상의 선택의 경우 대비분석 결과를 보면, 상향비교는 통제감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11.43, p < .0007$). 그리고 표 3을 보면 통제감이 높은 조건의 사람들은 유사비교(28%)와 하향비교(22%)보다 상향비교를(50%) 더 많이 선택하였다. 하향비교의 경우에도 통제감이 낮은 조건과 높은 조건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 = 8.07, p < .0045$). 그리고 표 3을 보면 통제감이 낮은 조건의 사람들은 유사비교(33%)와 상향비교(23%)보다 하향비교(43%)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사회비교 동기의 분석: 사회비교 동기는 실험 1에

서 사용한 6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부합도 지수가 양호했다 ($GFI = 1.00$, $AGFI = 1.00$, $NFI = 1.00$, $NNFI = 1.00$, $RMR = 0.099$). 따라서 각각의 사회비교 동기는 이를 측정하는 두 문항에 대한 평정치를 합한 값을 사용하여, 각각의 비교 동기에 대해서 2(성공/실패 환류) \times 2(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times 2(통제감) 3원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이제 각각의 사회비교 동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상향비교 동기는 성공조건($M = 12.52$)에서 실패조건($M = 8.53$)보다 더 높았다($F_{(1,112)} = 33.91$, $p < .001$, $\omega^2 = 0.22$). 이는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결과와도 일관된다. 또한 통제감이 낮은조건($M = 9.60$)보다 높은조건($M = 11.45$)에서 상향비교 동기가 더 높았다($F_{(1,112)} = 7.32$, $p < .01$, $\omega^2 = 0.05$). 통제감과 성공/실패 환류의 2원 상호작용도 유의하였지만($F_{(1,112)} = 4.49$, $p < .05$, $\omega^2 = 0.03$), 이는 유의한 3원 상호작용으로 해석이 제한된다($F_{(1,112)} = 5.14$, $p < .05$, $\omega^2 = 0.03$). 3원 상호작용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공 환류를 받은 조건에서 일관된 환류를 받았고, 통제감이 높은 경우에 일관된 환류를 받았지만 통제감이 낮은 경우보다 상향비교 동기가 더 높았다. 또한 성공 환류를 받았을 때 일관조건에서 비일관조건보다 상향비교 동기가 높았고, 통제감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상향비교 동기가 더 높았다. 따라서 성공 환류를 받았을 때에는 심적 자원을 지니게 되어서 상향비교 동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성공 환류이더라도 그 환류가 일관되게 주어지거나 통제감을 높게 지각하면 더욱 상향비교 동기가 높아지고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사비교 동기는 일관조건($M = 10.06$)보다 비일관조건($M = 13.41$)에서 더 높았다($F_{(1,112)} = 16.29$, $p < .001$, $\omega^2 = 0.11$). 따라서 비일관된 환류를 받으면 불확실성을 경험하여서 유사비교 동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유사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하향비교 동기는 실패조건($M = 12.43$)에서 성

공조건($M = 8.00$)보다 더 높았다($F_{(1,112)} = 32.35$, $p < .001$, $\omega^2 = 0.21$). 그리고 실패조건인 경우 비일관조건($M = 11.50$)보다 일관조건($M = 13.37$)에서 하향비교 동기가 유의하게 높았다($F_{(1,112)} = 4.76$, $p < .05$, $\omega^2 = 0.03$). 또한 통제감이 높은 때($M = 9.32$)보다 낮은 때($M = 11.12$)에 하향비교 동기가 더 높았다($F_{(1,112)} = 5.33$, $p < .05$, $\omega^2 = 0.03$). 따라서 실패 환류를 받았을 때에는 자존감에 손상을 입어서 하향비교 동기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실패 환류이더라도 그 환류가 일관되게 주어지거나 통제감을 낮게 지각하면 더욱 하향비교 동기가 높아지고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실험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공/실패 환류, 환류의 일관성 및 지각된 통제감이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하여 사회비교 동기와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이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실패 환류의 경우에는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과 사회비교 동기가 매우 일치하였다. 즉,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보다 지각능력이 우수했던 사람과 이후 수리능력 결과를 비교했고, 상향비교 동기도 실패조건보다 높았다. 반면에 실패 환류를 받은 사람은 자신보다 지각능력이 저조했던 사람과 이후 수리능력 결과를 비교했고, 하향비교 동기도 성공조건보다 높았다.

둘째,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의 선택과 비교 동기가 유사비교에 대해서 일정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일관된 환류를 받은 경우보다 비일관된 환류를 받은 경우에 유사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높았고 유사비교 동기도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성공조건인 경우 비일관조건보다 일관조건에서 상향비교 선택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상향비교 동기와도 일치한다.

셋째, 지각된 통제감의 경우에는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에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높

았고,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에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비교 동기와도 일치하는데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에 상향비교 동기가 유의하게 높았고, 하향비교 동기는 유의하게 낮았다. 이에 더하여 성공조건에의 경우에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에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고 상향비교 동기도 유의하게 더 높았다. 반면에 실패조건을 보면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에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더 높았지만, 하향비교 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수행의 성공/실패 환류, 성공/실패 환류의 일관성, 비교 속성 및 지각된 통제감이 촉발시키는 동기에 따라서 실제 사회비교의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먼저 성공/실패 환류에 의한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대한 이전 연구(Festinger, 1954; Hakmiller, 1966; Radloff, 1966; Wheeler, 1966; Wills, 1981) 결과에 근거하여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는 이후 부정적 비교 결과에 대처할 심적 자원을 지니게 되고, 상향비교 동기가 높아져서 상향비교를 추구할 것이며 실패 환류를 받았을 때에는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는 자기고양 동기가 높아져서 하향비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는 실험 1과 실험 2를 통하여 모두 입증되었다. 수행에 대한 성공/실패 환류가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두 실험에서 모두 성공 환류를 받은 사람들은 실패 환류를 받은 사람들보다 상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에 실패 환류를 받은 사람들은 성공 환류를 받은 사람들보다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자신의 수행에 대해 비일관된 환류를 받은 경우 일관된 환류를 받은 경우보다 불확실성을 더 경험하여서 자기평가 동기가 높아지므로 유사비교를 더욱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 1과 실험 2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실험 2

에서는 일관성이 유사비교 대상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실험 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실험 1에서 일관조건보다 비일관조건에서 유사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공 환류를 일관되게 받은 경우에는 비일관되게 받은 경우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상향비교 선택이 더 높으리라는 예측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실험 1의 관련조건과 실험 2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성공조건에의 경우 비일관조건보다 일관조건에서 상향비교 선택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 1의 경우 성공조건에 제한하여 검토해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 2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패 환류를 일관되게 받은 경우에는 비일관되게 받은 경우보다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하향비교 선택이 더 높으리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실험 1의 관련조건과 실험 2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실패조건에의 경우 비일관조건보다 일관조건에서 하향비교 선택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 1과 실험 2 모두 실패조건에 제한하여 검토해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공 또는 실패 환류를 받았고 이 환류가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제와 관련이 있거나 없는 조건은 실험 1에서만 다루었는데, 관련성은 어떠한 유의한 효과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Goethals와 Darley(1977)의 관련 속성설이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각된 통제감은 실험 2에서만 검토하였다.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에 상향비교 선택 빈도가 더 높았고,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에 하향비교 선택 빈도가 더 높았다. 또한 성공조건에만 제한하여 검증하였을 때에 지각된 통제감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에 상향비교 선택 빈도가 더 높았고, 실패조건에만 제한하여 검증하였을 때에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에 하향비교 선택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Taylor, Wayment 및 Carillo(1996)의 예측과 일치한다.

따라서 실험 1과 실험 2는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보였다기보다 실험 1에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실험 2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해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1에서 얻은 사회비교 동기의 측정치를 보면 비교 방향에 따라서 그 평균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를 보면 하향비교에 비하여 상향비교와 유사비교 빈도가 매우 높았다. 반면에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같은 상향비교, 유사비교와 하향비교 선택 빈도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실험 2의 경우 앞으로 하게 될 수리능력 검사를 연습시행을 통해 미리 경험한 후에 비교 대상을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비교 동기와 비교 대상의 선택 사이에서 일관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수리능력검사가 어려운 과제라고 지각하여 실험 1과 같은 상향비교 선택을 억제했을 수 있다.

실험 1에서 일관성과 관련된 본 연구의 예측이 지지되지 못한 것은 성공환류조건과 무관련되고 비밀관된 조건과 실패환류조건과 무관련되고 비밀관된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즉, 성공환류조건과 무관련되고 비밀관된 조건은 각각 성공 환류를 제시받은 조건 중에서 상향비교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사비교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사비교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무관련성이 오히려 상향비교 동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성 변인의 효과가 본 연구의 예측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실패환류조건과 무관련은 실패 환류를 제시받은 조건 중에서 하향비교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예측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각각의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비교는 실패 환류를 받았을 때보다 성공 환류를 받았을 때에 더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성공 환류를 일관되게 제시받고 성공한 과제와 관련된 과제를 앞으로 수행하게 될 때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제의 수행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상향비교가 어느 조건보다 더욱 우세하게 나타난다.

둘째, 유사비교는 환류가 일관되게 주어질 때보다 비밀관되게 주어질 때에 더 많이 나타난다.

셋째, 하향비교는 성공 환류를 받았을 때보다 실패 환류를 받았을 때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실패한 과제와 관련된 과제를 앞으로 수행하게 될 때 실패 환류를 일관되게 제시받고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 과제의 수행 결과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향비교가 어느 조건보다도 더욱 우세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관련성을 달리 조작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관련성을 지각능력검사 결과와 수리능력검사 결과의 상관으로 조작하였는데, 무관련조건에서 무관련성의 조작은 성공적이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높았다. 따라서 자기평가 동기에서 관련성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그러므로 관련성 조작에서 불확실성 효과가 혼입되지 않는 방법으로 독립변인 조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능력 차원에서만 일반화가 가능하다. 즉, 개인이 비교를 하는 차원이나 비교의 참조 근거로 삼는 차원은 능력뿐만 아니라 매력과 같은 신체적 특징, 성격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 등 다양하다. 이러한 변인의 경우에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목표의 개입과 동기가 달라지고 비교 대상의 선택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능력 차원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 한덕웅(1999).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과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11-329.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rown, J. D., Novick, N. J., Lord, K. A., & Richards,

- J. M. (1992). When gulliver travels: Social Context, psychological closeness, and self-apprais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17-727.
- Buunk, B. P., Collins, R. L., Taylor, S. E., VanYperen, N. W., & Dakof, G. A. (1990). Th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Either Direction has its ups and dow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38-1249.
- Festinger, L. A.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 *Human Relations*, 7, 117-140.
- Friend, R. M., & Gilbert, J. (1973). Threat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f locu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33, 725-732.
- Gibbons, F. X., & Boney McCoy, S. (1991). Self-esteem, similarity, and reactions to active versus passive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14-424.
- Goethals, G., & Darley, J. (1977). *Social comparison theory: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 C.: Halsted-Wiley.
- Hakmiller, K. L. (1966). Threat as a determinant of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32-39.
- Major, B., Sciacchitano, A. M., & Crocker, J. (1993). In-group versus out-group comparisons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711-721.
- Radloff, R. (1966). Social comparison and ability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 1, 6-26.
- Sun, Y., & Croyle, R. T. (1995). Level of health threat as a moderator of social comparison prefer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5), 1937-1952.
- Taylor, S. E., Wayment, H. A., & Carillo, M. (1996). Social comparison,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 Cognition*(pp.3-27). New York: Guilford Press.
- Tesser, A., Miller, M., & Moore, J. (1988). Some affective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nd reflection processes: The pain and pleasure of being clo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303-311.
- Trope, Y., & Neter, E. (1994). Reconciling competing motives in self-evaluation: The role of self-control in feedback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4), 646-657.
- Wheeler, L., & Miyake, K. (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60-773.
- Wheeler, L. (1966). Motivation as a determinant of upward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 1, 27-31.
- Wills, T. A. (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Wood, J. V., Giordano-Beech, M., Taylor, K. L., Michela, J. L., & Gaus, V. (1994). Strategies of social comparison among people with low self-esteem: Self-protection and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13-731.
- Wood, J. V., Taylor, S. E., & Lightman R. R. (1985). Social comparison in adjustment to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169-1183.

Effects of Feedback of Performance, Relevance of Comparison Attribute,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on Choice of Comparison Target

Eun-Young Jang and Doug-Woong Hahn

Dept. of Industrial &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success/failure feedback, consistency of success/failure feedback, relevance of comparison attribute,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of performance on choice of comparison target. In experiment 1, a 3(success/failure feedback: success, moderate, failure) \times 2(consistency of success/ failure feedback: consistent, inconsistent) \times 2(relevance of comparison attribute: relevant, irrelevant) 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 was used. One hundred and eighty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12 experimental conditions. In Experiment 2, restricted within relevant condition in experiment 1, a 2(success/failure feedback: success, failure) \times 2(consistency of success/failure feedback: consistent, inconsistent) \times 2(perceived controllability: low, high) completely randomized factorial design was used. One hundred and twenty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8 experimental conditions.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success/failure feedback was significant in experiment 1 and experiment 2. Success feedback led subjects to choose upward comparison target and failure feedback led them to choose downward comparison target. Second, the effects of consistency of success/failure feedback was significant only in experiment 2. Inconsistent feedback led subjects to choose lateral comparison target in experiment 2. This trend was found in experiment 1, which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consistency of feedback and perceived controllability made the effects of feedback of social comparison more stronger. Consistent success feedback led subjects to choose upward comparison target more than inconsistent success feedback did. And consistent failure feedback led subjects to choose downward comparison target more than inconsistent failure feedback did. In success condition, subjects who perceived high controllability chose upward comparison target more than those who perceived low controllability did. And in failure condition, subjects who perceived low controllability chose downward comparison target more than those who perceived high controllability did. In the stream of social comparison theori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